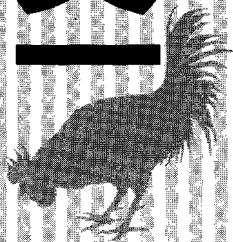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96년 계란생산량 0.9%증가

일본의 '96년 계란생산량은 257만3천488개로 '95년 보다 0.9%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긴끼(近畿)지방이 3.2%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현별로 보면 이와테현(岩手)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생산된 현별 계란생산량을 보면 가고시마현(158,087개), 이바라키현(150,957개), 지바현(136,497개), 아이찌현(133,138개), 홋카이도(158,087개)순으로 계란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鷄鳴新聞)

무정란, 식용 금지 통보

(사)일본종계부란협회는 최근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무정란에 대하여 계란, 닭고기의 안전성과 식품위생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각 부화, 종계장에 무정란을 식용으로 사용치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란, 닭고기의 안전성과 부화장의 대응방안”이라는 지침서를 통보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HACCP방식 등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살모넬라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연히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무정란이 식품위생에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취해진 조치로 부화장에서 나오는 무정란, 파각란 및 발육중지란은 선별하여 소각처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鷄鳴新聞)

VIV 아시아 축산박람회

참관객의 83% 만족스런 대회로 평가

VIV 아시아 축산박람회가 지난 3월 12~14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59개국 7,494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과거보다 외국 참관객이 부쩍 늘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었

는데 박람회 기간중 참관객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에서 참관객중 83%가 이번 박람회를 만족스런 대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참가자중 22%가 2일간 박람회를 둘러보았으며 박람회 전 기간 동안 머무른 참관객도 1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관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51%가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로 대답하였으며 27%는 기존의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 참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박람회 기간중 실제로 참관인중 43%가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출품업체들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 3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VIV아시아 박람회에 방문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95%정도가 기꺼이 방문하거나 아마 그럴 것이 다라고 답변해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VIV)

## 독립국가연합(CIS)

### 일부국가 계란생산량 회복세

소련 붕괴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국들의 계란생산량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까지 집계된 독립국가연합국들의 계란생산량을 '95년과 비교한 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전체 생산량중 60%를 넘게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몇 개국에서는 회복세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벨라루스의 경우 고기와 우유의 생산량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반면 계란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몰도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생산증가가 뚜렷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이며 조지아는 무려 43.8%나 증가하였다. 참고로 고기와 우유의 생산량 감소폭은 년 9%에 이르고 있으나 계란은 6%로 타축중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WP)

표. 독립국가연합 계란생산량('96.1~9 : 백만개)

연도	1995	1996	증감(%)
러시아	26,348	24,710	-6.2
우크라이나	7,840	7,378	-5.9
벨라루스	1,468	1,494	+1.8
몰도바	145	166	+14.5
아제르바이잔	378	400	+5.8
아르메니아	166	169	+1.8
조지아	203	292	+43.8
키르기스스탄	1,410	1,005	-28.7
타지키스탄	123	109	-11.4
타지키스탄	28	3	-89.3
투르크메니스탄	90	43	-52.2
우즈베크스탄	913	781	-14.5
계	39,112	36,550	-6.6

자료 : Statistic Bulletin of the CIS

## 네팔

###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키로

네팔과 중국이 양측의 경제 협력을 도모키 위해 무역체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자유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네팔에서는 다수의 네팔사업가들이 발전가능한 유망 시장으로 티벳지역을 주목해 왔다. 이에따라 네팔은 티벳지역에서 요구하는 많은 생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하였는데 지난해 10월 이미 사업대표단들이 만나 가금사육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였으며 머지않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P)